실제 느끼는 죄사함의 은총

(마가복음 2:1~12)

1. 수 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2.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3.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새
4.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5.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6.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7.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8.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9.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10.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11.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12.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실제 느끼는 죄사함의 은총>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실제 느끼는 죄사함의 은총'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과의 화해의 사건이라는 것을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던 죄가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죄가 있는 채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죄를 없애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연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배워서 알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죄 사함의 느낌을 느끼며 사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죄 사함의 힘과 그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일상에서 쉽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복음에서 죄 사함을 뺀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죄 사함을 우리는 쉽게 체감하지 못합니다. 교리를 배운 대로 죄 사함을 확신하고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죄 사함 받은 자가 가져야 할 감격과 능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고쳐야만 합니다. 세례란 곧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함을 통해 죽었다가 살아남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것이 죄 사함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렇게 죽고 살아나는 세례가 날마다 지속되어야 (Daily Baptism)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루터의 사상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한 사도 바울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곧 날마다 죄 사함의 은총에 대한 감격을 갖고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날마다 죄 사함을 받으면 날마다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 날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은 모든 면에서 온전해집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식 또한 본래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기에 중요합니다. 다만 이렇게 한 번 행해지는 세례식은 결혼식과도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부부관계가 되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를 통해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서 지었던 죗값을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부부가 된 이제부터의 삶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지 않고 화목하게 부부관계를 유지해야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죄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죄성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죄 사함의 역사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날마다 이루어지는 죽음을 통해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날마다 죄 사함의 은총 아래에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죄 사함에 대한 실제적 느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죄 사함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삶의 만사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집니다. 모든 불통과 불만과 걱정과 염려는 결국 죄로 인해 생겨난 결과입니다.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죄 사함이 지속될 수 있다면 건강문제, 재정문제, 직업문제 등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고 예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설교나 묵상의 소재로 자주 인용되는 매유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한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상당히 큰 오해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집요함과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요구를 강청한 대표적 사례로 본문이 인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중풍병자를 네 명의 친구가 큰 결심을 하고 주

님께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들과 똑같은 심정으로 병을 고침받기 위해 운집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평범한 집 구조를 생각해보면 사각형으로 집을 짓고 가장자리에는 침상과 부엌시설들이 있었고 가운데는 비어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차있었고 자리가 부족하자 문을 다 열어놓고 바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나중에 도착했기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남의 집 지붕을 뜯어버립니다. 지붕이라고 해봐야 큰 대들보를 몇 개 겹친 후에 잔가지를 얼기설기 놓고 진흙으로 덮은 구조였습니다. 이것을 다 파헤치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들것에 누운 중풍병자를 내려 보냅니다. 병 고침을 받겠다는 열망이 얼마나 뜨겁고 집요했는지 잘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해서 이런 집요한 열망을 믿음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원하는바 대로 일을 이루어주신다고 생각하고 또한 죄 사함의 은총으로도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소원이 생겨난다면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께 강청하면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씀에 대한 완전한 오해입니다.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죄 사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지붕을 뜯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먼저 환자와 네 친구들을 향해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이라는 단어가 참 돌출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원했던 것은 죄 사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죄 사함의 전제로 여겨지는 회개의 모습도 나타나지 않고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지도 않았으리라 여겨집니다. 중풍병자나 네 친구들은 한 순간도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죄 사함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특이한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선언하셨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하시는 가운데 지붕이 마구 뜯겨지더니 중풍병자가 들것에 실려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니 일단 고맙다고 인사는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중요한 건 죄 사함이 아니라 병이 낫는 것입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으리라 추측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던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죄 사함의 선언은 오히려 서기관들에게 시비를 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내 논쟁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7절을 보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하였고 이어지는 8절에서는 이들의 생각

을 예수님이 아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서기관들에게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라고 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시며 사건이 매듭지어집니다.
문제는 대체 예수님께서 왜 굳이 죄 사함을 선언하셨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저 이들의 정성과 열정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왜 굳이 죄 사함을 선언하셔서 서기관들에게 비난의 빌미를 제공하셨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지붕을 뜯고 들것을 내려 보내는 이 상황을 통해 죄 사함의 문제를 말씀하지 않으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이 상황을 생각해봅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집이 고대광실도 아니고 아무리 커봤자 사람 40-50명이 들어오면 꽉 차는 형태였을 것입니다. 그러고도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대문과 창문을 열어서 바깥에서 말씀을 듣게 하였습니다. 이 인파를 뚫을 수 없었던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전혀 다른 접근법을 생각해냅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뜯기 시작합니다. 한 순간에 지붕을 뜯어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쿵쿵대며 지붕을 뜯는 소리가 나더니 흙덩이가 떨어지고 먼지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윽고 지붕이 뚫리고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들것이 내려갈 정도로 지붕을 뜯으려니 상당히 오랜 시간을 소모했을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모임을 갖는 동안 지붕이 뚫리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대피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인파를 진정시키시고 그 상황을 지켜보게 하시고, 중풍병자의 들것이 내려오는 것을 기다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집 주인도 무척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집을 부수고 있으니 당장 올라가서 말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주님께서는 이러한 집 주인도 진정시키셨을 것입니다. 설령 이 집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시던 집이라고 생각한다 해도 예수님이 기다리셨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파를 진정시키고 기다리시면서 이들이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신 것일까요? 그리고 이들이 내려오자 죄 사함을 선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죄 사함과 함께 믿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여기서 죄는 헬라어 하마르티아(ἁμαρτία)로써 과녁에서 빗나가다, 본래 맞추어야 될 과녁이 아닌 다른 과녁에 향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가 지붕을 뜯고 들것이 내려오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계시던 집에 무리가 가득히 모여서 더는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여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은 전부 병 고침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과녁이 병 고침이었고 소원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꿈꾸는 것들이 화살이었던 셈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중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외국어 고등학교에 입학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있다면 외국어 고등학교는 과녁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몸에 병이 나서 건강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 마음의 화살이 향하는 과녁이 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안 되는데 기도를 해서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업이 잘 되는 것이 마음의 과녁인 셈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이러한 마음의 과녁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지만 아무도 예수님 자신을 과녁으로 삼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마주보고 있으면서도 마음의 과녁은 자녀의 형통, 사업의 발전, 병든 몸의 회복, 나라의 안위 등인 경우가 많습니다. 죄를 뜻하는 헬라어 하마르티아가 과녁에서 빗나감을 의미하듯이 이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고통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도 죄악의 상태가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지붕이 뜯겨나가고 중풍병자의 들것이 내려오는 예외적 상황이 발생합니다.

중풍병자를 움직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재수하고 삼수하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져서 저희 집이 달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에 할머니께서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반신불수가 되셨습니다. 형들은 군대에 가고 제가 할머니와 같은 방을 쓰면서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룻밤에도 일고여덟 번씩 일어나서 할머니의 생리적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요의를 자주 느끼셨는데 축 늘어진 할머니의 몸을 들고 일으켜서 변기에 앉혀드리기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달동네였기에 어디를 갈려고 해도 할머니를 업고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중풍병자의 네 친구들이 얼마나 큰마음을 먹고 환자를 들것에 들고 왔을지 짐작이 됩니다. 하지만 인파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의 얼굴도 볼 수 없는 모습을 보고 크게 낙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당사자와 친구들의 마음의 과녁은 오직 중풍 병에서 낫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갈 수 없음을 느끼게 되었을 때에 이들의 마음의 우선순위는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아야 나을 수 있는데 상황이 허락지 않으니,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보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적어도 이들이 왔음을 아셔야 예수님이 고치시든 말든 하리라 여겨졌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병을 고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와있기에 비키라고 소리칠 수도 없었고 밀쳐낼 수도 없었습니다. 고민 하던 중에 지붕을 뜯어버리자는 제안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들의 마음에서 중풍은 더 이상 우선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갈 것인가가 다섯 사람의 마음의 과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기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실망을 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을 목적으로 온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병 고침을 위한 수단으로써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마음의 화살을 예수님이라는 과녁에 향하고 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고치시기 이전에 도를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화살이 잘못된 과녁을 향하는 것이 죄임을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말해 마음의 화살이 날아갈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 마음의 화살을 날리는 다섯 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예수님께 마음의 화살을 쏘는 사람이 없어서 도를 가르치시고 계셨는데 그에 합당한 마음을 가진 다섯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에서 믿음을 보셨다고 하십니다.

믿음은 결코 무엇을 이루어 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닙니다. 중풍을 낫게 해달라고 조르는 동안 마음의 과녁은 예수님이 아닌 중풍의 치유입니다. 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돈 문제를 붙잡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마음의 과녁이 예수님이 아닌 돈 문제의 해결입니다. 이는 곧 돈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문제를 과녁으로 삼았다는 것은 곧 건강해져야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또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과녁으로 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 중에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예수님을 과녁으로 삼게 된 다섯 명이 나타난 것입니다. 마치 큐피드의 화살을 맞은 사람은 처음 본 사람에게 사랑을 품게 되는 것처럼, 이 다섯 사람의 마음이 큐피드의 화살처럼 예수님이라는 과녁에 꽂히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의 과녁에서 중풍의 치유가 밀려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붕을 뜯는 이들의 머릿속에는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몰두하게 될 때에 다른 관심사들은 잊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지붕을 뜯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지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놀라 우왕좌왕했을 것이고 집 주인은 화가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진정시키고 지붕이 다 뚫려서 들것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온 이들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들것에 들려 내려온 환자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다섯 사람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이들이 기특하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마음의 과녁은 전부 빗나가 있었습니다. 다들 자신들의 안위에 마음을 보내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는 곧 마음의 화살이 향해야 될 길이고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 명은 예수님을 과녁으로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렇기에 빗나가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한편 이 자리에 와 있었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그저 특이한 사람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7절에서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8~9절에서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질책하십니다. 예수님이 서기관과 다투시자 중풍병자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병을 고쳐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도달하는 것만이 이들의 목표였기에 죄 사함을 구한 적도 없으며 병을 고쳐달라는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지붕을 뜯으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서기관을 야단치시자 중풍병자는 물론이고 누구도 떠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방이 조용해진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가 낫는 것은 이들 다섯 명의 소원이기 전에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직 치유를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마음의 화살을 쏘았고 그것이 예수님 마음이라는 과녁에 맞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자 삶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중풍이라는 문제는 내가 소원해야 될 문제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쏘았더니, 삶의 문제는 어느덧 예수님이 소원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중풍 병을 고쳐달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상을 들고 가라고 말씀해주신 것입니다.
중풍이라는 문제가 예수님께 이관된 것입니다. 애초에 예수님께서 소원하시고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바라시는 문제였던 것만 같습니다. 마음의 과녁을 잘못 정한 사람들을 위해 도를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과녁을 정확히 정한 다섯 명에게는 도를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중풍이라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님을 드러내시기 위해 말하기 전에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입에서 병을 고쳐 달라, 문제를 해결해 달라, 환경을 개선시켜 달라는 소원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마음이 제대로 된 과녁을 쏘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소원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해 가지고 계신 소원입니다. 잘못된 것은 고치시기를 바라시고, 부족한 것은 채우시길 바라시고, 오류가 발생한 것은 정정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를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신

입장입니다. 우리 마음의 화살이 모두 잘못된 과녁을 향해 날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입으로 꺼내기 전에 이미 우리 삶에 대한 강렬한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지 않습니다. 계속 죄 속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연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죄 사함의 문제와 연관해서 서기관들에 대해 질책하신 내용도 이와 일치합니다.
다시 9절을 보면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석들을 보면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이해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심지어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말씀의 글자 수와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씀의 글자 수를 비교하기까지 합니다. 또 다른 주석을 보면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가 없지만, 상을 들고 가라는 말씀은 실질적인 치유의 표시이기에 증거가 됨을 두고 서기관들을 비꼬신 말씀이라 해석합니다.
저는 이런 주석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죄 사함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지경입니다.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보다 죄 사함의 증거는 오히려 더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것을 경험해본 적이 없기에 표면적 이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 이미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으셨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으며, 문둥병과 각색 병 걸린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서기관과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동안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 것을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중풍병자도 쉽게 고치시리라 예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사회통념상 죄 사함이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지 않은 자들 앞에서 죄 사함을 언급하시는 일이야 말로 오히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죄 사함을 언급하셨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이 마음의 화살을 잘못된 과녁에 쏘는 죄를 짓고 있었기에 도를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중풍병자와 네 명의 친구들은 예수님을 과녁으로 삼아 집중해서 화살을 쏘았습니다. 이들이야 말로 잘못된 과녁을 향하는 죄의 상태를 벗어났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의 행동을 믿음으로 보셨고 죄 사함을 말씀하시며 그 증거로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죄 사함은 병이 고쳐지는 것 이상으로 체감되는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이 환자의 중풍 병이 죄의 결과라고 합니다. 병이 죄의 결과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논리의 전개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중풍 병에 걸린 것이 개인의 죄의 결과여서 죄 사함이 필요했다면, 중풍에 걸리지 않은 네 친구나 무리들

중에 건강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았으니 죄 사함이 필요 없다는 결론이 되기 때문입니다. 병이 죄의 결과라는 점은 원죄적 측면에서 보자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 죄 사함에 적용시킬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죄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오히려 중풍 병 때문에 이들은 죄 사함의 축복의 장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발상이 위험한 이유는 병에 안 걸린 사람을 죄 사함이 필요 없는 의인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장수마을을 보면 아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들이 죄가 없기 때문에 장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기로 합니다.
우리 삶에서는 중풍 병에 걸리는 것과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중풍이 몸을 마비시키듯이 삶의 문제들은 우리의 생활을 마비시킵니다. 돈 문제가 발생하면 재정적 측면에서 마비가 옵니다. 자녀들의 학업에 문제가 발생하면 진로 문제에서 마비가 옵니다. 한의학에서 건강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이 원활한 기의 흐름이라고 하는데 중풍은 기의 흐름이 막힌 셈입니다. 삶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까요?
우리는 마음의 과녁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돈 문제가 생기면 돈 문제 해결을 과녁으로 삼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배우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배우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과녁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문제는 돈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닙니다.
조물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상황에서 돈이나 배우자의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다면 그에 필요한 비용은 필요한 만큼 주실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바라시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빚도 내고 실패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인한 돈 문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재벌처럼 돈이 남아도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에 적은 돈이 필요할 뿐이라면 재벌이 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한 달에 300만원으로 살아가야 될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면 그에 합당한 직장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과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돈을 문제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문제로 보고 계십니다. 과녁이 잘못되어서 마음으로 다른 과녁을 맞히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다른 과녁을 향하고 있는 것이 문제지 돈이나 건강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과녁삼아 마음의 화살을 쏘아서 하나님과의 연결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하늘로 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쏘는 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마음을 쏜다는 것은 곧 이 세상에 대해 마음이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는 어떤 것도 과녁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의 일인 한 설령 그것이 목회나 선교일지라도 마음의 화살이 향하는 과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 자리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마음의 과녁을 삼지 않게 되는 자리입니다. 중풍병자와 네 친구에게 그랬듯이 이 세상의 문제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계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문제들을 과녁 삼아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드리다보면 세상에 대해 죽게 됩니다. 그렇게 죽은 마음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도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먼저 죄 사함의 증거로써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세상과 관련 없는 기쁨과 만족이 생겨나고 걱정은 사라집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르고 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세상의 문제들이 더는 문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순서대로 다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계기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며 기도하는 동안 마음은 세상에 대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참여하게 된 마음에는 그 증거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만족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는 계기가 되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처음 문제를 마주했을 때에는 이것 때문에 망하겠다는 논리적인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문제가 이대로 유지되다가는 망하든지 당장 먹고살 것도 없이 거리에 나앉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화살이 향할 과녁을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바꾸게 되면 하나님과의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논리적으로 확실시되는 문제들이 더는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걱정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당신을 보아하니 돈 문제 때문에 쪼들리고 있는데 걱정도 안 됩니까?”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걱정을 하지 않는 이유는 죄 사함의 증거로써 하나님이 마음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은 곧 올바른 과녁이신 예수님을 향한 결과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명의 마음은 처음에는 중풍이 낫는 것을 과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인파로 인해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자 마음의 과녁이 예수님께 도달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지붕을 뜯고 들어갈 정도로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행동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이라는 정확한 과녁을 정한 순간 죄 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사는 방식은 날마다 죄 사함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마음이 향하게 되면 그것이 죄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바른 과녁인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 문제에 마음을 보낸 죄 때문에, 자녀 문제에 마음을 보낸 죄 때문에, 그 밖에도 건강이나 사업 혹은 직장문제 등에 마음을 보낸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에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주님의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 계십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연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문제를 죄 사함의 기회로 삼아야만 합니다. 세상일들이 문제로 느껴진다면 그 자체로 과녁을 벗어난 죄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돈 문제 해결이라는 과녁을 향하고 있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마음이 연결된다면 삶의 문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의 삶을 주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소원하고 자발적으로 개선을 이루어야 할 여지가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갖고 계신 좋고 멋지고 아름다운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셔야지 나에게서 그것들에 대한 소원이나 추구가 나타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바람을 무시한 채 자꾸만 세상의 문제들에 대한 소원과 추구를 계속한다면 과녁에서 빗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붕을 뜯고 내려올 정도로 예수님을 보기 원했던 이들과 만나신 예수님의 감격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오천 명이 들어오는 예배당에서 6부까지 꽉 차서 예배를 드린다면 3만 명이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과녁삼아 마음의 화살을 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출애굽한 장정 60만 명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은 것을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60만 명의 장정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 복지를 향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선민이라는 자들도 이러했거늘 대형교회라 불리는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 중에서 몇 명이나 하나님께 마음의 화살을 쏘고 있을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쁘다기보다는 어리석고 억울한 일입니다. 이 세상문제는 예수님을 향하는 기회와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삶을 살면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회로 삼아 예수님을 과녁으로 마음의 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가지고 하

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연결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러는 동안 내 삶은 내가 바라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생각을 말씀하시며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죄 사함은 십자가를 통한 과녁 바꾸기입니다. 죄 사함 하나로 이 모든 일이 시작되는데, 이 죄 사함을 생활화하지 못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도 쉽고 복된 인생을 살 수도 있는데, 엉뚱한 과녁을 향해 마음을 쏘는 동안 삶은 괴롭고 힘들어집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입으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마음으로는 다른 과녁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이렇게 세상을 향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단골메뉴입니다. 마귀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마음의 화살을 예수님이 아닌 이 땅의 대상들에게 향하게 되는 모습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목사님이 예배당 건축을 표적 삼아서 마음의 화살을 쏩니다. 권사님이 자녀의 출세를 바라며 마음의 화살을 쏩니다. 집사님이 사업이 잘 되기만을 바라며 마음의 화살을 쏩니다. 마귀가 너무나 좋아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삶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두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죄 사함을 생활화하면 됩니다. 죄 사함은 곧 올바른 과녁이신 십자가의 주님께 마음의 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과녁도 십자가를 통해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죄 사함으로 주어지는 은총을 실제로 느끼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죄 사함의 은총을 실제로 느낌으로써 마음도 몸도 은총 충만의 상태로 이어져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